

K-해양금융 혁신 포럼

출범식 및 제1차 포럼

2026년 3월 24일(화) 14:00 - 17: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강당



부산국제금융진흥원
Busan Finance Cente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전체 포럼 기획 개요 >

- (포럼명) K-해양금융 혁신 포럼
 - (일정) 분기별 개최 예정
 - (주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 주최
 - (목적) 해양특화 금융 혁신을 통한 K-해양강국 건설*
- * 국정과제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1차 포럼 프로그램=====

- (일정) 2026년 3월 24일(화)
- (장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대강당)
- (인원) 40명 내외 (21개기관, 연사 포함)

[시간표]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등록	
14:00-14:30	출범사(KMI, BFC)	사회: 김명희(BFC)
14:30-14:35	기념사진 촬영	
14:35-15:05	초청강연 생산적금융,건전성,해양클러스터 신관호 고려대 교수, 現 한국금융학회장	
15:05-15:35	초청강연 해양금융중심지 부산의 비전 이기환 한국해양대 교수, 前 해양금융대학원장	
15:35-15:45	K-해양금융 혁신 포럼 추진 경과 보고	보고자: 고병욱(KMI)
15:45-16:00	휴식(다과)	
16:00-17:30	종합 토론	좌장: 이동해(BFC)
17:30-	폐회 및 만찬	



Contents

I. 출범사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6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08

II. 초청강연

생산적금융,건전성,해양클러스터	13
신관호 고려대 교수, 現 한국금융학회장	
해양금융증심지 부산의 비전	33
이기환 한국해양대 교수, 前 해양금융대학원장	

III. 포럼 추진경과

K-해양금융 혁신 포럼 추진 경과 보고	43
------------------------------------	----

출범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조 정 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조정희입니다.

새봄의 활기가 느껴지는 3월,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의 출범식과 제1차 포럼의 개최를 맞아 자리를 마련해주신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 해운, 조선, 금융, 산업 각계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KMI와 함께 귀한 포럼을 출범시켜 주신 이명호 원장님께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첫 포럼의 초청강연을 맡아 주신 고려대학교 신관호 교수님과 한국해양대학교 이기환 명예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포럼의 주인공인 산업계, 금융권, 기술 연구개발 기관의 참여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항만공사, 한국선급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술 연구개발 기관으로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럼의 공동 주최기관인 저희 KMI와 BFC와 함께 금융혁신에 대한 도움을 주실 잠재적 연구 협력기관으로서 산업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에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관의 실무 책임자분들이 포럼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해양 클러스터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러·우 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탈탄소 규제 강화, AI 혁명,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도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불확실성 속에 우리 해양 클러스터 기업과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글로벌 여건 속에서 우리 해양 클러스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국내 정책의 변화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부산 이전을 마쳤습니다. 부·울·경 지역이 해양수도권으로 도약할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끼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 클러스터도 역량 강화와 혁신을 통해 내실을 다진다면, 비생산적 부분에서 방향을 전환한 큰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부·울·경 지역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1등 해양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과 산업의 노력에 덧붙여 클러스터 차원의 시너지 창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에 기반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금융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는 장(場)이 저희 KMI와 BFC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K-해양금융 혁신 포럼』입니다. 앞으로 KMI와 BFC는 이러한 논의의 장(場)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가고, 나아가 체계적으로 해양금융 혁신방안을 제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럼이 우리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민-관-학-연의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다양한 해양금융 혁신 방안이 도출되어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범사



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이명호입니다.

오늘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함께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을 출범하고,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포럼 출범을 위해 애써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첫 포럼의 초청 강연을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신관호 교수님과 한국해양대학교 이기환 명예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포럼에 참여해 주신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부산항만공사,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 해양산업 관계기관, 그리고 산업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학계와 연구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양금융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 이후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출범하는 오늘 이 포럼은 단순한 협력 플랫폼의 출범이 아닙니다. 부산과 대한민국이 해양산업과 금융을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전략과 경로를 창출해 나가는 실질적 도전의 시작입니다.

세계는 이미 금융을 통해 산업과 국가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금융이라는 무형 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경제 구조를 전환한 사례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금융은 제도와 전략으로 경쟁하는 산업입니다만 지정학적·물리적 조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부산은 2009년 해양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정책금융기관 집적,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등 단계적인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선대보유국이자 세계 2위 환적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산업 경쟁력을 갖춘 해양산업 강국입니다. 이러한 산업 인프라가 동남권에 집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산은 해양금융 발전의 최적지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해운·물류 활동은 부산에서 이루어지지만, 의사결정과 자본의 흐름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과 금융이 분리된 구조이며, 부산이 가진 해양산업의 잠재력이 금융을 통해 증폭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해양금융을 육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금융·보험·법률·서비스가 결합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 과제가 분명해집니다. 부산은 해양산업의 물리적 중심이 아니라 자본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실질적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운 대기업 유치,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의 결합, 그리고 산업과 금융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해양금융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도시의 성공 사례 또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과 런던은 신뢰 기반 제도를 통해 시장을 형성했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세제와 인재 정책으로 자본을 유치했으며, 두바이는 별도의 금융 구역과 영미법 기반 제도를 통해 후발주자임에도 빠르게 도약했습니다. 부산 역시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금융제도, 시장 친화적 감독체계, 그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혁신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은 정책금융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입니다. 이 포럼을 통해 ①해양금융 핵심 과제 발굴, ②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의 연결 구조 설계, ③글로벌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 도출, ④산업과 금융이 결합된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이 글로벌 해양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는 이미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갈 전략과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산적금융,건전성, 해양클러스터

신관호 고려대 교수, 現 한국금융학회장



부산국제금융진흥원
Busan Finance Cente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제1차 K-해양금융 혁신 포럼
일시: 2026년 3월 24일(화)
장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생산적 금융, 건전성 그리고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現 한국금융학회 회장

➤ 발표자료 작성 지원: KMI 고병욱 연구위원

내용

1. 들어가며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3. 금융혁신과 건전성
4.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5. 나오며

내용

1. 들어가며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3. 금융혁신과 건전성
4.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5. 나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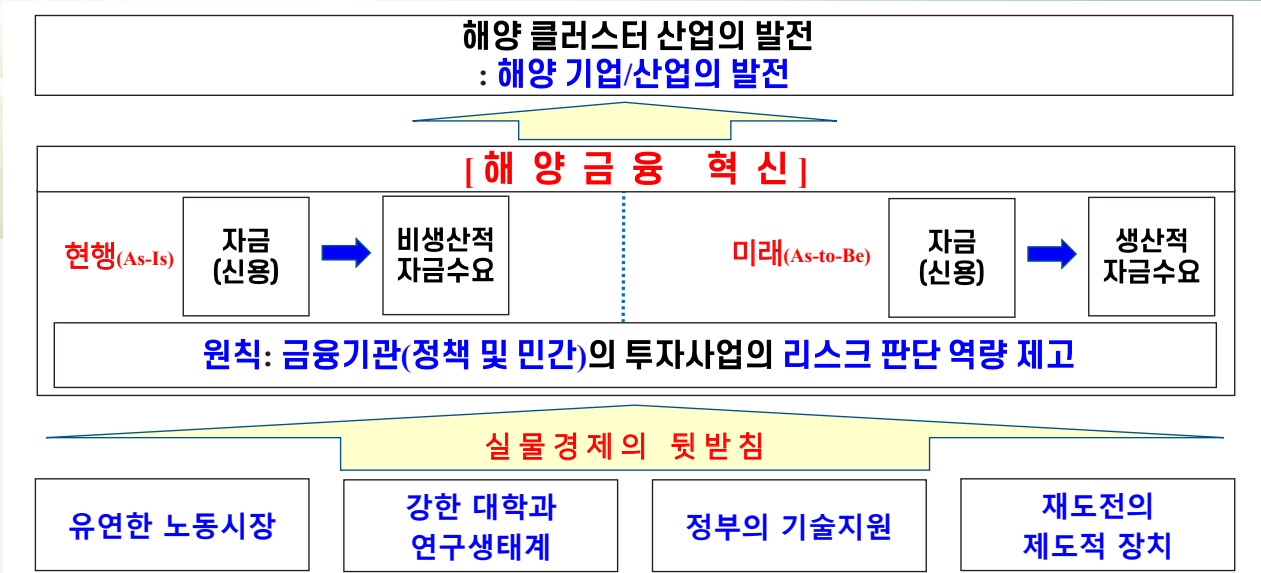
1. 들어가며

논의의 배경



1. 들어가며

논의의 프레임(Frame)



5

내용

1. 들어가며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3. 금융혁신과 건전성
4.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5. 나오며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문(25년 7월 3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립니다. ...

→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25년 9월 16일)

국정목표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전략 5: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

국정과제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 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 벤처·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ESG금융강화

7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개요)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25.9.19)

→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

제2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25.10.22)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모색

제3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25.12.22)

→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26.2.25)

→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위한 **다양한 과제** 논의

생산적 금융 구조 **세미나**(26.2.9)

→ **생산적 금융 선순환** 구축: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대도약** 방안을 모색

8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25.9.19)

의의

- 금융권 중심의 기존 회의체와 달리,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

안건 1: 생산적 금융 추진 방향 – 3대 전환의 추진

- 정책금융 전환: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를 전환
- 금융회사 전환: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 정립
- 자본시장 전환: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안건 2: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 산술적으로 명목 GDP 대비 1%의 부가가치 증대효과 기대
- 전략산업(인공지능, 방산 등)과 관련기업의 지원에 집중. 장기 인내자본이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
- 금융위·산업부처·산업은행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통합패키지 솔루션(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제공

안건 3: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 BIS 기준과 현행 국내 규정간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운영기준 합리화
-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추진

9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2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25.10.22)

의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모색

현 상황 평가: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대한 문제 인식

- 정책금융: 다양한 우대금융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산업재편 및 첨단산업 육성의 성공에 이르지 못함
- 시중은행: 상업적(담보위주) 금융제공에 따라 전략적인 지역 산업·기업 육성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

기본 원칙: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지방금융 공급체계 전면 혁신

- 정책금융: 금리·보증료·한도 등 직접적 우대 조건 강화 및 규모 확대
- 시중은행: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인센티브·규제 개선으로 지역금융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정책금융 추진과제: 우대금융 확대를 통한 지역금융 지원체계 대폭 개편

-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 신설: 28년까지 비수도권 연간 공급비중 40→45%
- 지역 금융에 대한 우대조건 및 대출·보증 공급규모 확대: 지방기업 상황별 맞춤형 대출·보증 상품 대폭 확대
- 지역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지방 전용 펀드 3종 패키지 추진 및 국민성장펀드의 40%를 비수도권에 지원
- 지역 정책금융 인프라 혁신: 지역중심 공급체계 강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10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3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25.12.22)

의의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 논의

목표(벤치마킹, 미국)

실리콘밸리 뿐 아니라, 나스닥 시장, 장기 민간 모험자본 등이 촘촘히 연계되며 초기기업 → 고성장기업 → 상장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주요 정책 방향

1. 벤처·스타트업의 주식이 안전하게 거래되도록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의 허용
2. PEF(기관전용사모펀드)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
3.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 투자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실화
4. 대형IB(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한국투자증권 등)가 모험자본 공급에 앞장서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지속

11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26.2.25)

의의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위한 다양한 과제 논의

역점 과제 1: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투자자들이 ESG 대응현황 및 리스크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

역점 과제 2: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1.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지원을 위한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
 - 특히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
2. 녹색금융과 함께 전환금융을 병행해 탄소중립을 위한 입체적 지원체계 구축
 - 녹색금융: 재생에너지 등 탄소감축 성과가 입증된 친환경 녹색활동에 대한 지원
 - 전환금융: 탄소 다배출 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3. 기후금융 인프라 고도화: 신뢰할 수 있는 기후금융 정보인프라 구축

12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생산적 금융 구조 세미나 (26.2.9)

의의

↳ 생산적 금융 선순환 구축: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대도약 방안을 모색

1. 한국개발연구원: 초혁신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

↳ 기술·생태계 이해 기반의 첨단기술 맞춤형 혁신자본 공급 체계 구축
지역 혁신수요에 맞는 장기·위험자본 공급을 통해 지역 기술·산업 생태계를 구축

2. 금융연구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배분 효율화 모색

↳ 금융 공급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적인 공급 확대보다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생산성이 높지만 금융 제약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자금이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3.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

↳ 중국: 국가 전략과 산업·금융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
일본: 가계의 여유자금이 기업 혁신자금으로 공급되고 추가 상승과 배당 소득을 통해 다시 가계의 자산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

4. 자본시장연구원: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세제, 연금 개선방향

↳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 모험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생산적금융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 국내 자본시장의 세후 실질 수익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인 체계의 재구조화 필요
장기 투자가 자산 형성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게 세제 측면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

13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소결: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방향과 목적

	내용	목적
방향 1	금융이 수요자인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대도약 지원
방향 2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모색	지역 균형 발전 지원
방향 3	자본시장을 혁신성장의 지원 플랫폼으로 육성	경제 혁신 지원
방향 4	기후 금융 활성화	경제와 기업의 녹색전환 지원
방향 5	금융의 선별 기능 강화	경제의 생산성 향상
방향 6	국가전략·산업정책·금융정책의 장기적·일관된 추진	생산적 금융 선순환 구축

생산적 금융 대전환, 즉 금융 혁신은 금융 시스템과 기관의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14

내용

1. 들어가며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3. 금융혁신과 건전성
4.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5. 나오며

3. 금융혁신과 건전성

금융혁신과 건전성: 의미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

새로운 금융수단, 금융기술, 금융기관, 금융시장을 창조하고 대중화하는 행위
(the act of creating and then popularizing new financial instruments, as well as new financial technologies, institutions, and markets)

가계: 투자와 소비에 대한 새로운 선택을 가능케 함. 자금 조성 비용을 절감케 함
기업: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음. 또한 기존에는 조달할 수 없었던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함

출처: Lerner and Tufano (2011)

금융 건전성(Financial Soundness)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이 모두 중요: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감독
4가지 지표: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출처: 예금보험공사

3. 금융혁신과 건전성

금융혁신의 유형

1. 상품혁신(product innovation)

↳ 새로운 파생상품, 기업 유가증권, 투자상품 등의 도입

2. 과정혁신(process innovation)

↳ 새로운 유가증권의 배분방법, 거래방법, 가격책정방법 등의 도입

3. 기관혁신(institutional innovation) 또는 조직혁신(organizational innovation)

↳ 기관혁신: 새로운 형태의 금융회사 설립
↳ 조직혁신: 기존 금융기관의 새로운 조직 운영 방법

4. 제도혁신(institutional innovation)

↳ 감독제도 등 금융 인프라의 혁신

상품혁신 또는 과정혁신



기관혁신 또는 조직혁신



제도 혁신

출처: 이종건(2019)

17

3. 금융혁신과 건전성

금융시장의 중요 고려사항

1. 불완전 정보(Incomplete Information)

↳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 문제의 해결이 필요
예: 복잡한 금융상품의 위험을 적합하게 인식 못한 투자자가 낮은 가격에 그 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2. 인센티브 (Incentive)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위험 선별에 대한 인센티브 왜곡이 중요 원인으로 작용

3. 유동성 (Liquidity)

↳ 특정 투자자의 위험선호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금융상품은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

4. 금융시장 인프라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 금융상품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등이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

5.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충격의 증폭 (System Dynamics and Amplification of Shocks)

↳ 군집행동(herding behavior) 등으로 충격이 증폭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보임

출처: Jenkinson, Penalver, and Vause (2008)

18

3. 금융혁신과 건전성

금융혁신의 특성

1. 금융 시스템의 고도의 연계성

↓ 금융혁신은 고도로 연계된 금융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만들어 냄
따라서 금융혁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매우 도전적 과제가 됨

2. 금융혁신의 고도의 역동성

↓ 금융혁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확산되면서 새로운 금융혁신을 불러옴
금융혁신이 실패했다라도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금융혁신을 불러올 수 있음

3. 금융혁신에 대한 규제 복잡성과 역동성

↓ 규제적 변증법(regulatory dialectic): 규제 갭(gap)을 이용한 금융혁신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는 다시 새로운 금융혁신을 불러옴
통상적으로 규제당국이 금융혁신에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출처: Lerner and Tufano (2011)

19

3. 금융혁신과 건전성

금융혁신의 편익과 위험

금융혁신의 편익: 혁신-효율성 견해 또는 혁신-성장 견해

↓ 금융혁신이 은행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개선
위험분산을 촉진시키고, 불완전한 시장의 완전성을 도모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이러한 편익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

금융혁신의 위험: 혁신-취약성 견해

↓ 금융혁신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인식
소홀히 다룬 위험의 과다 노출: 주택가격 거품과 그와 연계된 파생상품의 부도(default) 위험을
적합하게 다루지 않고 소홀히 취급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투자자의 금융시장에 대한 오해를 악용한 구조화 상품의 개발: 금융기관이 위험을 적합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금융혁신을 할 유인

출처: 이종건(2019); Jenkinson, Penalver, and Vause (2008); Gennaioli, Shleifer, and Vishny (2012); Henderson and Pearson (2011)

20

3. 금융혁신과 건전성

소결: 생산적 금융 대전환과 건전성 확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은 5 가지 금융혁신
(상품혁신, 과정혁신, 기관혁신, 조직혁신, 제도혁신) 모두를 포괄

생산적 금융 대전환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이러한 긍정적 영향의 최대화와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투자사업에 대한 리스크 판단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미시적 건전성 확보)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높은 연계성과 역동성을 고려해
거시적 건전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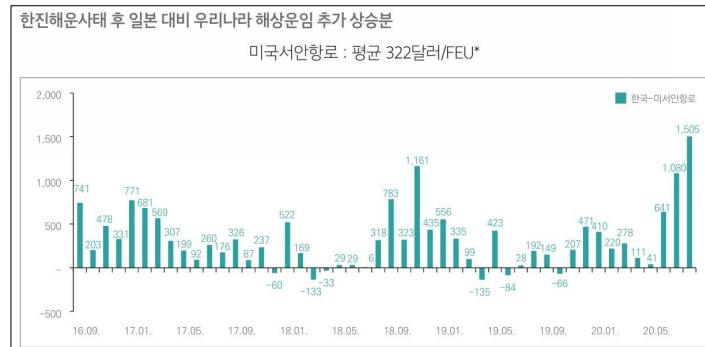
내용

1. 들어가며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3. 금융혁신과 건전성
4.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5. 나오며

4.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해운의 외부효과: 국적효과-1

2016년 8월 3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우리나라 수출 화주는 일본에 비해 컨테이너 박스 1개 당 평균 322달러의 추가 운임 부담이 발생



주: FEU(Forty-Equivalent Unit)는 길이가 40피트인 컨테이너 박스를 의미
출처: Ko (2020);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2022)

23

4.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해운의 외부효과: 국적효과-2

2020년 코로나19 위기 시에 급격히 증가한 해상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나라 선사들은 임시선박을 추가로 투입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상운송을 지원
당시에 글로벌 선사들은 운임이 더 높은 중국 화물을 우선 수송

수출물류 지원을 위한 임시선박 투입 실적

도착지	투입 척수	운송 물동량
미주	55	155,025TEU
유럽	4	9,586TEU
동남아	15	11,793TEU
합계	74	176,404TEU

주: TEU(Twenty-Equivalent Unit)는 길이가 20피트인 컨테이너 박스를 의미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2022)

24

4.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R&D와 인적자본의 중요성: 외부효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와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외부효과 등의 문제로 R&D와 인적자본의 축적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

과학기술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

R&D를 통해 만들어지는 과학기술은 비경합성(non-rivalry)의 특성을 가짐
 이러한 과학기술의 특성은 R&D에 대한 과소투자의 우려를 가져옴
 따라서 공공부문(정부 등)의 R&D 지원이 필요함

인적자본(human capital)

인적자본은 비경합성은 없으나,
연구개발 분야의 과소투자 문제와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과소투자가 우려됨
따라서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공공부문(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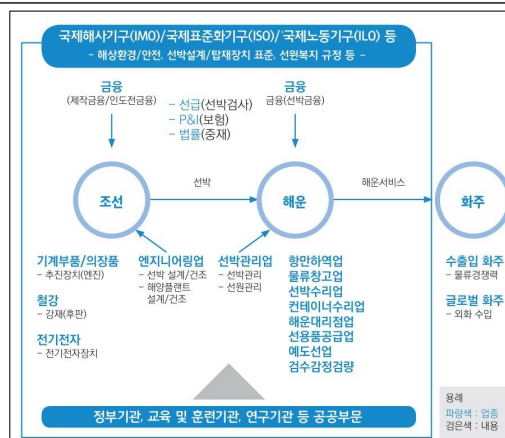
출처: Romer (1990)

25

4.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해양 클러스터 산업의 상호 보완성

해운, 항만, 조선, 조선기자재, 금융 등은 산업생태계를 형성
해양 클러스터의 구성 산업 일부의 경쟁력 약화는 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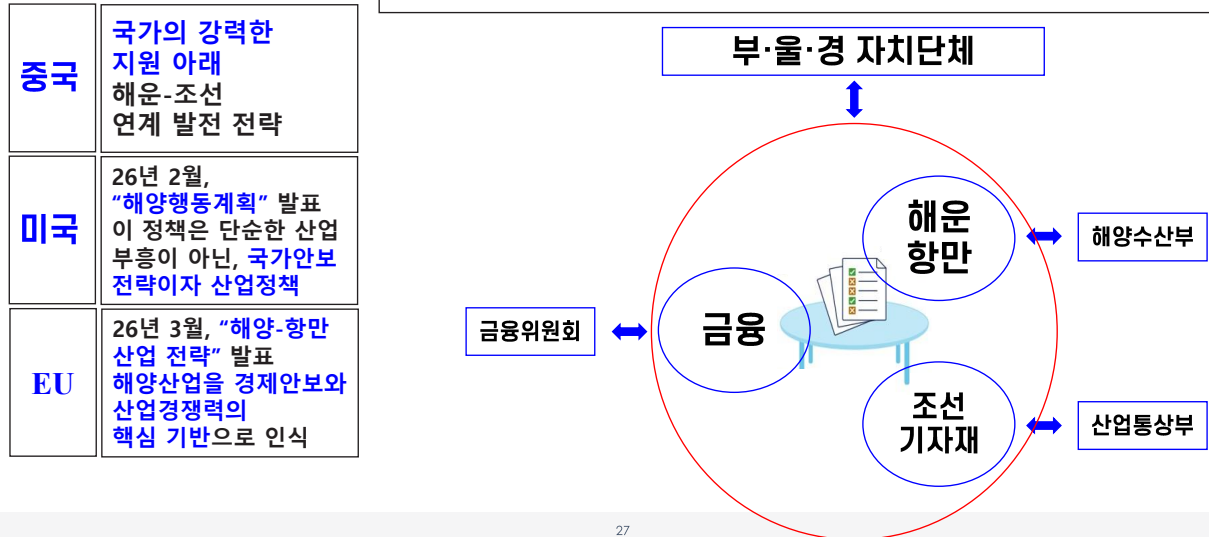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2022)

26

4.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통합적 정책 거버넌스

정책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지방정부와 산업계의 협력 강화



27

4.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미국의 MAS(S)GA

미국 조선·해운 산업의 재건
(Making America's Shipbuilding (Shipping) Great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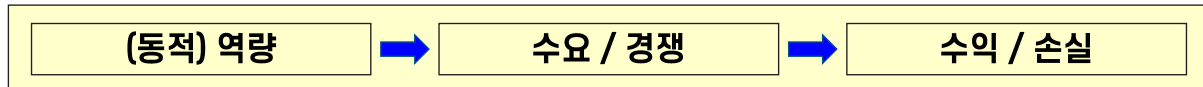
해양행동계획 (26년 2월) 1. 미국 조선 능력·역량 재건 2. 해양 인력 교육·훈련 개혁 3. 해양산업 기반 보호 4. 국가안보, 경제안보 및 회복탄력성	한미 정상 회담 합의 (25년 11월) 한국의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분야 투자	SHIPS 법 (25년 4월) ▪ 백악관내 해양안보보좌관 신설 ▪ 해양안보신탁기금 설치 ▪ 전략 상선대 프로그램 창설 (10년내 250척) ▪ 조선소·선박 투자 인센티브 제공
--	---	--

28

4.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역량(capabilities)의 중요성

기업의 (동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와 이익 실현이 가능



(동적) 역량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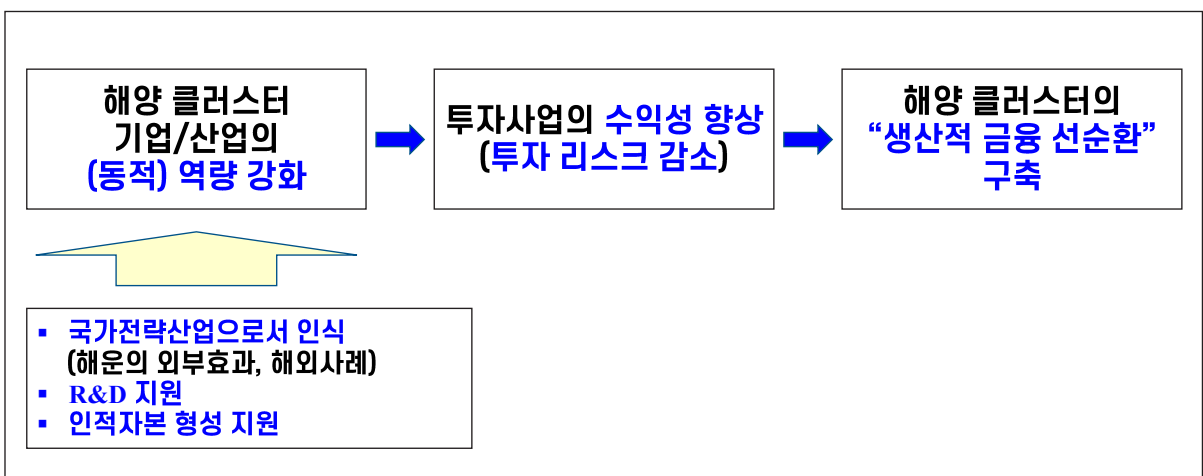
출처: Teece (2025)

29

4.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소결: 생산적 금융과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통합적 정책 거버넌스



30

내용

1. 들어가며
2. 생산적 금융 대전환
3. 금융혁신과 건전성
4. 해양 클러스터 산업정책
5. 나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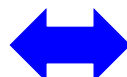
5. 나오며

요약

대한민국 해양 클러스터의 대도약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 판단 역량 제고



투자사업의 수익성 향상

1. 해양 클러스터 기업/산업의 (동적) 역량 강화
2. 통합적 산업정책
 - ①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
 - ② R&D 지원
 - ③ 인적자본 형성 지원

5. 나오며

권고: 포럼의 추진 방향

K-해양금융 혁신 포럼: 민-관-학-연의 협력 플랫폼

해양 클러스터의 시너지(집적효과 등)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포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부문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것을 권고

33

참고 문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 2022.

이종건,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3호, 2019.

Gennaioli, Shleifer, and Vishny, “Neglected Risks, Financial Innovation, and Financial Fragilit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04, 2012.

Henderson and Pearson, “The Dark Side of Financial Innovation: A Case Study of the Pricing of a Retail Financial Produc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00, 2011.

Jenkinson, Penalver, and Vause, “Financial Innovation: What Have We Learnt?”, *Quarterly Bulletin Bank of England*, 2008.

Ko, Byoung Wook, “The Nationality Effect from Price Discrimination in the Container Shipping Market and the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Economics - Treating Hanjin Shipping’s Collapse as a Natural Experiment”, *Journal of Korea Trade* 24(6), 2020.

Lerner and Tufano, “The Consequences of Financial Innovation: A Counterfactual Research Agenda”, *Annual Review of Financial Economics*, 2011.

Romer,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1990.

Teece, *Dynamic Capabilities: Foundational Concep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5.

34

감사합니다
THANK YOU

해양금융증심지 부산의 비전

이기환 한국해양대 교수, 前 해양금융대학원장

K-해양금융 혁신포럼

2026.3.24

GLOBAL MARITIME FINANCE HUB

해양금융중심지 부산의 비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 이기환

목차

해양금융중심지 부산의 발전 로드맵



01

PAST (BEGINNING)

부산의 해양금융중심지 태동

금융중심지 지정(2009)과
초기 인프라 및 기반 구축



02

PRESENT (STATUS)

부산 해양금융의 현황

글로벌 위상 분석 및
자금 조달 구조의 진단



03

FUTURE (VISION)

부산 해양금융중심지의 미래 비전

디지털·ESG 혁신 및
글로벌 해양수도 도약

01 지정 이전 부산의 위치 (2009년 이전)

산업적 기반과 금융 인프라 간의 불균형 심화



강점 (Strength)

INDUSTRIAL BASE

- **세계적 항만 인프라**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서의 입지와 물류 네트워크 보유
- **세계 최대 조선업 벨트**
울산 ~ 부산 ~ 거제로 이어지는 세계 1위 조선 산업 집적지
-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조선기자재 및 선박관리업(Ship Management) 기업 다수 포진



약점 (Weakness)

FINANCIAL INFRA

- **금융 인프라의 절대적 취약**
실물 산업을 뒷받침할 전문 금융 기관 및 자본 부족
- **조선업 지원의 한계**
금융 지원 부재로 인한 조선 및 해운 산업의 성장 제약
- **정책적 지원 미비**
해양금융 특화 정책 및 제도가 부재했던 시기

PREPARATION PHASE

학술적·제도적 기반 마련

1996 ~ 2008

지역금융연구회 및 국제금융포럼 운영을 통한 공감대 형성

02 FOUNDATION PHASE

금융중심지 지정과 초기 인프라 구축

해양금융 특화 전략의 시작과 핵심 기관의 집적화 과정

2009



금융중심지 공식 지정

서울(종합금융)과 함께 해양·파생금융 특화 중심지로 선정되어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

2011



추진 체계 및 정보 센터 설립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및 해운거래정보센터(MEIC) 개소로 실무 추진력 및 정보 인프라 확보

2014



해양금융종합센터(MFC) 출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해양금융 부서를 BIFC로 통합 이전하여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초기 집적



주요 정책금융기관 부산 이전 가속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캠프선박운용 등 관련 기관의 순차적 이전으로 해양금융 클러스터 기반 조성

Phase 2: Expansion & Future

해양금융 인프라 연표 (2015 ~ 2025)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전문 기관 설립과 미래 비전을 향한 여정



Infrastructure & Network

전문인력 양성 및 학연 클러스터

해양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식 생태계 구축

EDUCATION

전문 인력 양성 체계

한국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실무형 금융 전문가 육성

- 2011** 선박금융학과 신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내 국내 최초 선박금융 석사과정 개설
- 2018** 해양금융대학원 설립
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부산시 지원으로 전문대학원 확대 개편 및 산학 협력 강화

RESEARCH & POLICY

영도 해양클러스터

동삼혁신도시 내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

- KMOU**
한국해양대학교 (교육·연구 중심)
-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 연구)
-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 R&D)

Current Status

부산 해양금융의 글로벌 위상

LEADING MARITIME CITIES

10 위

세계 해양도시 종합 순위
(Global Top 10 진입)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GFCI)

25 위

2023년 37위 → 2024년 24위

분야별 경쟁력 분석 (5대 지표)



① 금융 지표의 구조적 한계

현재의 금융 지표는 부산 자체의 금융 역량보다는 서울 소재 대형 해운선사들의 상장 실적 등이 반영된 결과로, 지역 금융 생태계의 실질적 성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

Current Challenge

국내 해양금융 자금 조달 구조

민간 금융 생태계의 취약성과 정책·외국 자본 의존적 구조



외국계 은행 54%
유럽 및 중국계 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대외 변수에 취약

정책금융기관 37%
산은, 수은, 해진공 등 공공 주도의 자금 공급이 시장을 지탱

민간금융 9%
시중은행 및 지역은행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생태계 확장에 한계

KEY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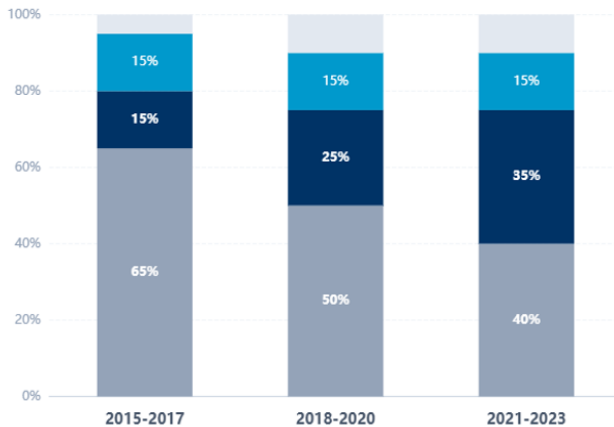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해양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지역 금융기관의 해양금융 참여 확대가 필요

Market Trend Analysis

글로벌 선박금융 원천별 변화 추이

전통적 은행 대출의 감소와 대체 금융(리스)의 급격한 성장

자금 조달 원천 비중 변화 (2015-2023)



GLOBAL ANNUAL CAPITAL DEMAND

\$1,500 억 달러

연간 약 1,000억~1,500억 달러 규모의 신조 및 중고선 확보
자금이 지속적으로 소요됨

은행 대출 축소 65% → 40%

규제 강화(Basel III 등) 및 해운업 리스크 회피로 전통적 선박금융 위축

리스 금융 급증 15% → 35%

중국제 금융 리스가 은행의 빈자리를 대체하며 시장 주도권 확대

직접금융(자본시장) 비중 15%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미미하여, 여전히 전통적인 대출과 리스에 의존하는 구조

Future Strategy 01

미래 전략 ① 디지털화 & ESG 금융

핀테크 기술 접목과 친환경 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DIGITAL INNOVATION

STO & 조각투자 도입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선박 금융의 유통화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 창구를 다변화합니다.

- ✓ 토큰증권(STO) 발행 플랫폼 구축
- ✓ 선박 수익권 조각투자 활성화
- ✓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연계



GREEN TRANSITION

친환경 선박 ESG 금융 모델

국제 환경 규제(IMO)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특화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 친환경 선박 신조 자금 우대
- ✓ 탄소중립 이행 연계 금리 인하
- ✓ 녹색채권(Green Bond) 발행 지원



VENTURE CAPITAL

해양 벤처 창업 지원

조선기자재 및 해양 데이터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투자를 확대합니다.

- ✓ 해양 특화 모태펀드 조성
- ✓ 조선기자재 기술 스타트업 육성
- ✓ 규제 샌드박스 적용 및 실증 지원

Future Strategy 02

미래 전략 ② 민간금융 참여 확대

정책금융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적인 민간 금융 생태계 조성

From Public to Private

현재 9% 수준에 불과한 민간금융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시장 논리에 의해 작동하는 선진형 금융 허브로 도약합니다.

TARGET GOAL

Private First

→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일본 이요은행(Iyo Bank) 벤치마킹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모델 도입으로 산업 이해도 제고

Best Practice



BNK금융그룹 역할 강화

부산은행·경남은행의 해양금융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하여 지역 앵커 은행 육성

Regional Bank



선박금융 제도 및 세제 혁신

조세리스 제도 도입 및 원화 선박금융 활성화를 통한 비용 경쟁력 확보

Policy



중소조선소 RG 발급 지원

선수금환급보증(RG)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제조합 등을 활용한 보증 시스템 구축

Support

Future Strategy 03

미래 전략 ③ 해양수도 제도적 기반

법적 지위 확보와 행정 기능 집적을 통한 글로벌 해양 도시 완성



LEGAL FRAMEWORK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법제화하여 행정·재정적 특례를 확보합니다.

- ✓ 해양특화지구 지정 권한 확보
- ✓ 규제 프리존 등 지원 규정 신설



TARGET 2025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양 행정의 컨트롤타워를 현장에 배치하여 정책 실행력과 산업 연계성을 극대화합니다.

- ★ 2025년 말 이전 완료 목표
- ★ 해양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도



NEW ORGANIZATION

동남권투자공사(가칭) 설립

지역 주도의 벤처 투자와 개발 금융을 전담할 특수목적 공공기관을 신설합니다.



NEW FRONTIER

북극항로 개척 선제적 대비

미래 물류 혁신이 될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하여 연구와 인프라 투자를 선행합니다.

Strategy Analysis

부산 해양금융의 SWOT 분석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적 포지셔닝



S

STRENGTH (강점)

- 세계적 항만·조선업 기반 보유 및 산업 클러스터 집적
- KOBC(해양진흥공사)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집결
- 해사기술(Maritime Tech) 분야 세계 1위의 경쟁력



W

WEAKNESS (약점)

- 민간금융 비중 9%에 불과한 정책금융 편중 구조
- 주요 해운기업 본사의 서울 의존도 심화
- 글로벌 금융 허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시 매력도

SWOT



O

OPPORTUNITY (기회)

- STO·조각투자 등 디지털 금융 및 ESG 전환 선점 기회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2025) 및 해양수도 특별법 추진
-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신규 선박금융 수요 발생



T

THREAT (위협)

- 외국계 은행(54%)의 국내 해양금융 시장 과점
- 중국 리스금융의 급격한 성장 및 시장 잠식
- 싱가포르, 상하이 등 글로벌 해양도시 간 경쟁 심화

VISION 2030

해사기술 세계 1위에서 해양금융 세계 일류로

From Maritime Tech No.1 to Global Finance Leader

STRATEGY 01



디지털·ESG 금융화

STO 및 조각투자 도입과 친환경 선박 ESG 금융 모델 구축을 통한 미래 금융 시장 선점

STRATEGY 02



민간금융 생태계

정책금융 중심에서 벗어나 BNK 및 시중은행 참여 확대를 통한 자생적 금융 허브 조성

STRATEGY 03



해양수도 제도 완성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및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도적 기반 마련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새로운 도약

부산에서 세계로,
바다를 금융으로 잇다

감사합니다

K-해양금융 혁신 포럼 추진 경과 보고

제1차 K-해양금융 혁신 포럼
일시: 2026년 3월 24일(화)
장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해양금융 혁신 포럼 추진 경과 보고

고병욱

KMI 연구위원

내용

1. 추진 계기
2. 포럼의 운영 개념 도출
3. 추진 경과
4. 포럼의 운영 방안(안)
5. 포럼의 미래 비전

1. 추진 계기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의 추진 계기

**부·울·경 해양수도권 구현을 위한 해양금융의 새 물결(혁신) 필요성 공감
: 양 기관의 포럼의 정례화/내실화 합의**

[KMI-BFC 공동 개최: 제8차 해양수산 초격차 포럼(25년 12월 2일)]



3

2. 포럼의 운영 개념 도출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의 운영 개념 도출

[KMI-BFC 연구진 포럼 추진 계획 1차 미팅(25년 12월 19일)]

포럼 운영의 목적 도출:
**부·울·경 해양 클러스터 고도화 및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산업-금융-정책-연구 협력 체계 강화**

포럼의 주최(KMI, BFC) 및 아래 참여 기관/기업 선정:
산업계: 해운/조선/조선기자재/항만. 단, 수산/관광은 단기적으로 제외
금융계: 정책금융기관(부산소재 5곳), BNK 등 민간금융기관
정책/연구: 해양수산부/부산시, 해양대/고려대, 산업연구원 등

포럼 운영의 기본 사항 도출:
콘텐츠 포맷: 주제발표 세션과 종합토론 세션으로 구분/운영
개최 주기: 분기별 개최

4

3. 추진 경과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의 추진 경과

1. 포럼 추진 계획(안) 기관장 보고: 25년 12월 말

2. 해양수산부, 부산시 협의: 26년 1월 12일 - 16일

3. 금융기관 협의: 26년 1월 19일 - 23일

4.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기관 협의: 26년 1월 26일 - 2월 24일

산업계(7), 금융계(5), 기술연구계(2), 정책연구 파트너 기관(4) 등
총 18개 유관기관의 실무 담당자 참여 확정

5

4. 포럼의 운영 방안(안)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의 운영 방안(안)

[해양 클러스터 생태계]

중앙정부 - 지자체

산업계(기술연구 포함)

수익
투자

금융계

K-해양금융
혁신 포럼

공식적 소통을 통한 시너지 창출

분기별 포럼: 비전 / 정보 공유, 부문 간 이해 증진, 금융 혁신 관련 정책 / 연구과제 도출

비공식적 소통을 통한 시너지 창출

포럼 활동으로 확보된 협력 채널을 통해 소통하며 시너지 창출

KMI / BFC: 연구보고서 발표 / 정책 제안 등으로 체계적인 피드백 제공

6

5. 포럼의 미래 비전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의 미래 비전

부·울·경 해양 클러스터의 글로벌 대도약에 기여
: 해양금융에 대한 글로벌 Top 포럼으로 발전

다보스 포럼

WORLD
ECONOMIC
FORUM

부산 포럼

BUSAN
OCEAN
FINANCE
FORUM

7

감사합니다
THANK YOU

